

윤 직원
영감의 인색한
행동과 치부
과정 제시



윤 직원 영감
집안의
난맥상 소개



윤 직원
영감의 종학에
대한 기대와
그의 피검
소식

- 윤 직원 영감의 부친 윤용규는 시골에서 우연히 얻은 돈으로 큰 치부를 하였으나 화적폐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 윤 직원 영감은 서울로 올라와 일제와 결탁하고 고리 대금업 등으로 큰 재산을 이룩함.

- 윤 직원 영감은 자신의 손자들이 경찰서장과 군수가 되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외아들 창식은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손자 종수는 그의 아버지의 첩 옥화와 불륜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음.

- 마지막 희망이었던 손자 종학이 피검되자 윤 직원 영감은 큰 충격을 받고 이 태평 천하에 사회주의 운동을 하였다고 크게 고함치며 절규함.

■ 줄거리

일꾼이나 하인은 상전을 섬기기만 하고 대가(對價)는 바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윤 직원 영감은 인력거를 타고 와서는 그 샅을 깔겠다고 한다. 또한, 그는 나이 어린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주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윤 직원 영감은 자기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소작인에게 땅을 붙여 먹고 살게 하는 것도 무슨 큰 자선 사업이나 되는 것처럼 여긴다.

그런 식으로 부(富)를 축적한 윤 직원 영감에게는 쓰라린 기억이 있다. 출처가 불확실한 돈을 모았던 그의 아버지가 구한말(舊韓末) 시절에 화적들의 습격을 받아서 죽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일본인이 들어와 불한당을 막아 주고 ‘천하 태평’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윤 직원은 진심으로 일본인들을 고맙게 생각한다. 돈을 버는 데는 무엇보다도 권력과의 결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윤 직원 영감은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 데 아낌없이 기부한 것이다. 또, 윤 직원은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급

(鍍金)한 것으로도 모자라 손자 ‘종수’와 ‘종학’이 군수와 경찰서장이 되어 가문을 빛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들과 손자는 윤 직원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래서 집안의 분란은 끊이지 않는다. 아들 ‘창식’은 집을 돌보지 않고 노름으로 밤을 새며 가산만 탕진하고 있고, 군수를 시키려던 손자 ‘종수’는 아버지의 첩 ‘옥화’와 정을 통하는 불륜을 저지른다. 며느리나 손자며느리도 고분고분하지가 않고 딸마저 시댁에서 소박맞고 와서 함께 살고 있다.

그래도 윤 직원 영감은 고압적으로 집안 분위기를 억누르고 있던 차에,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고 있던 손자 ‘종학’이가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피검’되었다는 전보를 받고 충격을 받는다.

■ 작품 더 알아보기

■ 이해와 감상

1938년 「조광」에 ‘천하태평춘’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작품으로 단행본으로 출판되면서 ‘태평천하’라는 제목으로 바뀌었다. 이 작품은 구한말(舊韓末)에서 개화기를 이어 일제 강점기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수난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일제 시대의 지주이자 고리 대금업자인 윤 직원의 역사 의식 부재(不在)와 부정적 인물로 구성된 한 가족의 몰락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인물의 부정적 성격이 강할수록 희화적 풍자는 심해지는데 특히 일제 강점기 현실을 ‘태평천하’라고 칭하는 주인공 윤 직원 영감을 반어적이고 풍자적인 수법으로 묘사함으로써 식민 치하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현실 대응 방식이 무엇인가를 암시하려 하였다. 이 작품에서 풍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인물은 종학뿐인데 작가는 종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윤 직원 일가는 손자 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으로 검거되었다는 전보를 받은 후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 “태평천하”의 풍자적 성격

“태평천하”는 판소리 사설의 풍자 수법을 계승하고 있다. 작자는 ‘-입니다’식의 경어체 문장을 씀으로써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 서서 작중 인물을 조롱하고 비



판한다. 이때 독자는 작자와 한편이 되어 작중 인물에 대해 우위를 지키면서, 작중 인물을 저만치에 두고 그의 행위를 구경하는 관중이 될 수도 있고 평가가 될 수도 있다. “관중이 없어서 웃어 주질 않으니 좀 섭섭한 장면입니다.”라는 작자의 말은, 소설 독자와 작자의 일대일의 관계를 의식한 것 - 달리 말하면 독자 한 사람이 작품을 읽게 된다는 소설 장르의 성격을 의식한 것이지만, 연극 관객적인 위치에 서기도 하면서 독자와 내통하는 화자로서의 작자의 입장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작자는 때때로 독자와 작중 인물의 중간에 서서 작중 인물을 평하면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도 한다. 이 점에서 작자는 판소리 창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작자는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당자 역시 전라도 태생이기는 하지만 전라도 말이라는 게 좀 경망스럽습니다.”라고 자신을 드러내 가면서 작중 인물의 언동을 해설·논평한다. 판소리 사설처럼 이 작품에서도 인물의 풍자에 있어 반어, 자기 폭로, 비유, 과장, 희화화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이 모든 것은 대상을 격하시키고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반어는 ‘언어적 반어’와 ‘상황적 반어’로 크게 나눌 수 있겠지만, 이 작품에서 사용된 것은 ‘언어적 반어’이다. 이것은 한 가지 일을 말하면서 그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것, 달리 말해서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가 모순되게 말하는 것이다. “태평천하”에서 화자인 작자는 작중 인물의 언동에 대하여 겉으로 긍정하면서 실제로는 부정하는 말을 자주 쓰고 있다.

- 김윤식 편, “채만식”(문학과 지성사, 1984)

■ 이야기 전달 방식의 전통성

판소리의 서술 상황은 일차적으로 극적이다. 그러나 판소리는 극에서의 극적인 상황과 유사성을 지니면서 극의 경우와는 또 다른 면모를 동시에 드러낸다. 극이 이야기를 행동화하여 무대에서 보여 주는 것이 원칙이라면, 판소리는 무대에서 창자가 노래를 하면서 극적인 요소는 ‘발림’으로 보여 주며 동작은 언어적인 방식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판소리는 이야기를 전달함에 있어서 창자가 가상적으로 극적인 무대를 만들어 그것을 창과 아니리로 서술(노래)하는 것을 관객이 들으면서 무대를 상정하는 그러한 전달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창자는 판소리의 언어적

인 텍스트를 해석하고 고수와 함께 호흡을 하면서 그 속으로 청중을 끌어들인다. 이것이 연극의 전달 방식과 다른 판소리 서술 방식의 특징이다. 이러한 서술상의 기법은 “태평천하” 전반을 지배하는 서술 원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서술 원리를 중심으로 판소리의 ‘아니리’에 해당하는 작자의 주관적 서술을 주로 활용하는 것이 “태평천하”의 서술 특징이다.

- 우한용, “채만식 소설 담론의 시학”(개문사, 1992)

12.

사하촌, 김정한

■ 작품 정리

■ 해제

1936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당선작으로 김정한의 데뷔작이다. 보광사라는 절의 논을 소작하며 살아가는 성동리 마을 농민들의 문제를 그린 단편소설. 특정한 주인공 없이, 일제 강점기의 모순된 농촌 현실 속에서 가뭄과 지주(地主)의 무자비한 횡포로 고통을 겪으면서 농민 스스로 연대 의식의 필요성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 갈래

단편 소설, 농촌 소설

■ 성격

사실적, 현실 참여적, 저항적

■ 배경

- ① 시간 - 1930년대 어느 여름
- ② 공간 - 사하촌인 성동리와 보광리

■ 특징

- ① 농민 다수를 주동 인물로 설정하여 농민 문제 해결책 암시
- ② 진지하고 사실적이며 무거운 분위기의 문체 구사
- ③ 흉년에도 소작료를 모두 바쳐야 하는 일제하의 모순된 농촌 현실이 갈등의 원천임
- ④ ‘개미 떼’와 ‘지렁이’의 상징성(이 작품의 첫머리에는 개미 떼와 지렁이를 등장시켜 가뭄이 든 땅의 모습을 보여 주는 부분이 있다. 여기에서 ‘지렁이’는 극심한 가뭄과 승려들의 착취에 고통 받는 성동리 농민들을 상징한다. 그리고 ‘지렁이’를 물어 뜯고 있는 새까만 ‘개미 떼’는 농민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보광사 승려를 상징한다.)

■ 주제

부조리한 농촌 현실과 농민들의 저항

■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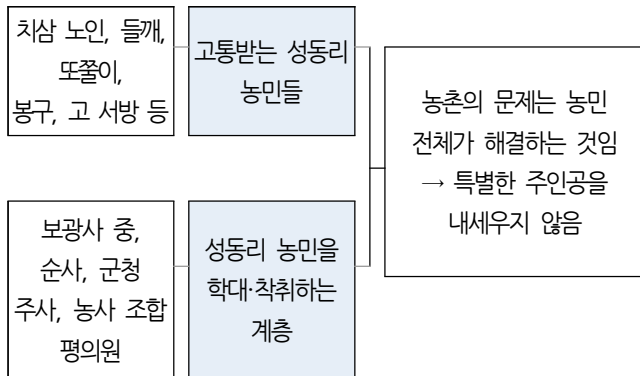
- 발단 : 극심한 가뭄에 논바닥이 말라붙었다. 들깨는 논에 물을 대러 갔다가 허탕을 친다. 보광사 중들이 물을 끌어다 썼기 때문이다. 자기 논이 물꼬를 터 놓은 고 서방은 보광리 사람들에 의해 폭행당하고 저수지의 물은 끊긴다.
- 전개 : 주민들이 기우제를 지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가을이 되었으나 흉작이었다.
- 위기 : 상한이와 차돌이는 알밤을 줘다 산지기에 게 들키고 만다. 도망치다 차돌이는 굴러 떨어져 죽고 차돌의 할머니는 미치고 만다. 농민 대표인 고 서방, 들깨, 또쥔이가 보광사에 선처를 호소하나 거절당하고 논에는 ‘임도 차압’이라는 팻말이 붙는다.
- 결정·결말: 극한 상황에 처한 농민들이 차압 취소와 소작료 면제를 탄원하기 위해 벗짚단을 들고 보광사로 향한다.

■ 등장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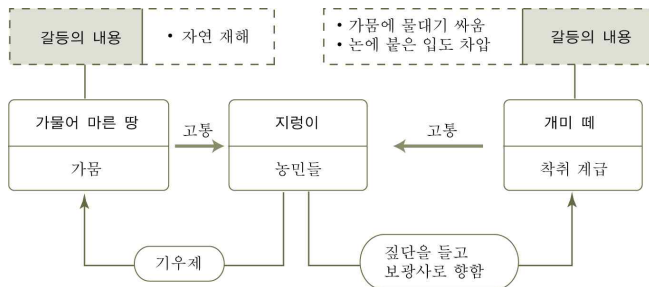
- 치삼노인 : 자손대대로 복받고 극락갈 것이라는 중의 껌에 넘어가 절에 논을 기부한 농부로, 그 논을 소작을 하면서 중들과 마찰이 생기자 가슴 아파하는 인물이다.
- 들깨 : 치삼노인의 아들로, 가뭄이 들어 물싸움이 일어나자 자기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노승과 싸움을 하며 중들의 횡포에 분연히 일어서는 동적인물임.
- 고서방 : 붓목에 논을 가지고도 물을 못 댈 만큼 천성이 착한 사람이다. 물꼬를 조금 터놓았다가 봉변을 당하며 얼토당토않게 남의 논두렁을 잘랐다는 죄목으로 끌려가 몇 달간 헛고생을 하다가 추석이 지난 뒤에 풀려난다. 풀려난 뒤에도 사방공사 품팔이를 다니나 논에 임도 차압이 붙자 견디지 못하고 야간도주를 한다.
- 이주사 : 악덕 지주로 쇠다리 주사택이라는 별명을 지닌 인물



▶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농촌 현실의 모순이 몇몇 영웅적 인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통 받는 농민 전체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작가 의식 때문에, 특별한 주인공의 삶보다는 보광리와 성동리 사람들 전체의 모습을 보여 주는 데 치중하고 있다.



작품 투시도



- **포인트 1** 빈농의 참담한 삶의 단면을 사실적으로 보여 줌
- **포인트 2** 민족 운동과 사회주의에서 벗어난 소작인들의 저항 방식을 제시함

줄거리

타작 마당, 말라붙은 뜰 한가운데에 지렁이 한 마리가 바둥거린다. 극심한 가뭄이다. 들깨는 논에 물을 대려고 나갔다가 허탕만 친다. 그 알량한 봇물까지도 보광사 중들이 죄다 그들 논으로 끌어다 썼기 때문이다. 성동리 농민들 대부분이 보광사의 땅을 부치고 사는 소작농이다. 치삼 노인은 중의 꾀에 빠져 보광사에 논을 기부하고는 이제 그 논을 소작하는 신세다. 절은 불공을 드린다고 많은 돈을 거두어 들고 무거운 소작료를 부과하는 횡포를 부린다. 수도 저수

지 출장소에서는 농민 폭동이 염려되어 잠깐 물질을 툰다. 그러나 생색만 낸 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 물 싸움이 벌어지고 인심만 흉하게 된다. 그중에도 들깨는 논에 물을 댈 수 있었는데, 그것도 고 서방이 물꼬를 터 놓았기 때문이었다. 고 서방은 연행된다. 성동리 주민들은 기우제를 지내고 보광사 역시 기우 불공을 드리지만 아무런 영험이 없다. 가을이 되었으나 추수할 것이 없을 정도의 흉작이었다. 다행한 것은 고 서방이 석방된 일뿐이다. 어느 날 상한이와 차돌이는 알밤을 줍다가 산지기에게 들킨다. 도망을 치다 차돌이는 굴러 떨어져 죽고, 그 할머니는 미치고 만다. 보광사에서는 흉작임에도 예전과 똑같이 소작료를 요구하고, 성동리 농민들을 대표한 고 서방, 들깨, 또쭤이 등이 찾아가 선처를 호소하나 거절당한다. 논에는 '입도 차압'이라는 팻말이 붙고 고 서방은 야반도주하고 만다.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하자 성동리 농민들은 차압 취소와 소작료 면제를 탄원하기 위해서 짚짚단을 들고 보광사로 향한다. 철없는 아이들도 행렬의 꿈무늬에서 짚 태우러 간다고 부산히 떠든다.

성동리 마을에 든 극심한 가뭄

- 심한 가뭄에 논바닥이 말라붙음.
- 들깨가 논에 물을 대러 갔다가 허탕을 친.
- 자기 논에 물꼬를 터놓은 고 서방이 폭행을 당함.

가뭄의 지속과 가을의 흉작

- 기우제를 지냈으나 가뭄이 계속됨.
- 가을이 되었으나 흉작임.

상한의 죽음과 입도 차압 예고

- 삭정이를 꺾으러 갔던 가동 할멈의 손자 상한이 산지기에게 쫓기다 죽고 가동 할멈은 미쳐 버림.
- 성동리 주민들의 논에 '입도 차압' 팻말이 붙음.

보광사로 향하는 농민들

- 차압 취소와 소작료 면제를 탄원하기 위해 농민들이 짚단을 들고 보광사로 향함.
- 아이들이 짚 태우러 간다고 부산히 떠들어 댄